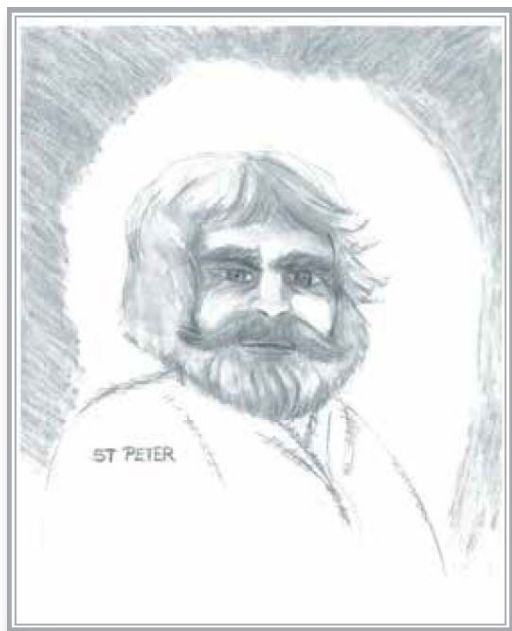


베드로 성인이 주신 메시지

유혹에 맞서는 갑옷



목격증인이 직접 그린 베드로 성인의 모습

“사랑하옵 예수님,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 저를 공격해 오는지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저의 갑옷이 되어 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아멘.” (2010년 2월 8일)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2010년 2월 2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초대 교황인 베드로입니다. 유혹에 대한 일련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천상의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죄악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위험이 있는 무질서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죄인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할 때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매 현 순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죄인은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쾌락이나 이익, 명성, 돈, 혹은 권력보다도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기 마음속을 살핍으로써 사탄이 무엇을 사용해 어떻게 유혹해 오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을 깨달은 다음에는 악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악을 피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유혹과 죄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2010년 2월 4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매 현 순간의 내적인 깊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 매 순간에는 은총의 선물과 유혹의 함정이 함께 따릅니다. 흔히 영혼은 그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도록 사탄이 유혹을 잘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최소한 어떤 만족감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마지막에 두고, 하느님과 이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때 영혼은 유혹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각 영혼에게는 매 현 순간마다 유혹을 극복하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사

랑’의 불꽃 안에서 정화될수록 영혼은 현 순간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거룩한 사랑’이 거룩함을 길러내는 지혜의 씨앗을 함께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2010년 2월 7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유혹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또 그 유혹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며, 이곳에서의 천상의 개입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들의 자만심에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또 진리를 왜곡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와 권력과 돈에 대한 욕구가 자라나게 합니다. 일단 진리가 타협되면 영혼은 어떤 유혹에든 쉽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낙태죄를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생명은 잉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반 대중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잉태 때부터 시작된다’는 진리가 도전을 받아 낙태 합법화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선교사업은 많은 이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당연히 이 메시지들의 진리와 이 선교사업 자체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업이나 메시지에는 혼란을 야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모든 영혼의 원수가 진리를 왜곡시킴으로써 이것을 혼란스러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사랑’ 이외의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는 진리가 타협됩니다. 영혼이 신뢰하지 못할 때 진리가 타협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결핍되었을 때 영혼은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만을 믿습니다.”

4 유혹에 맞서는 갑옷

“이제 여러분은 사탄이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를 타협하도록 유혹할 때 사탄이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2010년 2월 8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여러분에게 유혹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를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은 언제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유혹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에 이끌리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애착 즉, 탐욕이나 욕정, 명예욕이나 권세욕 때문입니다. 일단 진리가 타협되면 죄는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무엇에 애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탄이 어느 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죄로 유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허약하며,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사실을 보다 깊이 깨달을수록, 영혼은 영적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자신의 영적인 결점을 아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힘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사랑하옵 예수님,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 저를 공격해 오는지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저의 갑옷이 되어 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아멘.”

2007년 7월 13일 예수님께서 주신 다음 기도문을 위의 기도문과 함께 바쳐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빛이며 진리입니다. 당신의 안배와 자비와 사랑은 진리 안에 감싸여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늘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 숨어 있는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겹손이 진리 그 자체임을 아오니, 겹손이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2010년 2월 15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유혹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습니다. 나는 크든 작든 모든 유혹은 사탄의 거짓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모든 죄인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거짓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신에게 호소하는데, 이는 사탄이 영혼을 유혹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완덕에 이르기 위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2010년 2월 19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유혹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유혹은 흔히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언제나 감각을 자극하거나 행복한 삶에 대한 영혼의 관심을 이용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부채질합니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강해질수록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피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도 더욱 커집니다. ‘거룩한 사랑’을 유혹에 맞서는 갑옷으로 삼으십시오.”

“사탄은 영혼을 유혹하여 주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 때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영혼의 마음을 현 순간에서 미래로 끌어들이으로써 유혹합니다. 사탄은 영혼

6 유혹에 맞서는 갑옷

에게 신뢰해서는 안되는 것가지 이유와, 신뢰하는 것과 달리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가능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수난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을 부인하도록 내가 유혹을 당했던 방법입니다. 나도 주님과 같은 죽음을 맞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거룩한 사랑과 현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 순간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거룩한 사랑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정이 좌우될 때,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22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도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혼이 오직 사리사욕만을 추구할 때 그는 유혹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리사욕은 여러 가지 목적을 복잡하게 뒤얽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모든 죄는 그릇된 사리사욕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사랑’은 마음에서 사리사욕을 씻어내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모으도록 방향을 되돌려줍니다. 사리사욕을 없애는 것이 각자의 마음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첫 걸음이기때, 사탄은 영혼이 사리사욕에 가득 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 현 순간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애씁니다.”

“‘거룩한 사랑’의 완덕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영혼은 사탄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경로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사랑’이 마음으로 통하는 모든 경로를 지키게 하여 원수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드십시오.”

2010년 3월 3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혼돈의 시대인 오늘날, 세상에는 진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유혹은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리사욕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리사욕이 어떤 개인적인 안건을 추구하기

위해 진실을 적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 긍정하고 편견 없는 분별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진리에 맞서게 하는 이 유혹이 오늘날 사적 계시에 관한 부정적인 분별의 원인입니다.”

“세상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천상의 충고나 개입은 무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실로, 선은 도전을 받아도 악은 도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의 통신 수단은 퇴폐적인 것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덕이 이러한 유혹에 도전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술력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통탄할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다면 하느님의 심판이 과연 얼마나 멀리 있겠습니까?”

“유혹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은 또한 하느님의 진노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내 경고의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2010년 3월 5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진리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견지에서 생각해볼 때, 봉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날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의 실체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력과 권위가 너무나도 자주 거짓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길을 택하게 하는 유혹은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것이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탐욕과 권력욕과 그에 수반되는 지배욕의 영에 사로잡히면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흔히 거짓 분별은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이것 역시 교만의 심각한 유혹입니다.”

8 유혹에 맞서는 갑옷

“각 영혼에게는 진리를 발견해내야 하는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이로 인한 모든 함정, 특히 가장 큰 함정인 경솔한 판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솔한 판단은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큰 유혹이며 함정입니다.”

“이제 봉헌된 영혼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데 엮이는지 알겠지요. 사탄의 덮은 교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겸손함으로 진리를 찾으십시오. 사탄은 겸손한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2010년 3월 8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들에게 알려십시오. 모든 죄는 어떤 식으로든 ‘거룩한 사랑’이 부족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을 거스르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리사욕이 커지면 ‘거룩한 사랑’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영혼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2010년 3월 9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여러분이 거룩함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러 왔습니다. 이 갈망이 마음을 불사르면 거룩함을 거스르는 유혹이 드러나고, 보다 쉽게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인 첫째 심방의 열쇠는 ‘신앙의 보호자시여, 저를 도우러 오소서.’ 라는 화살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영혼의 원수는 이 강력한 칭호 앞에서 달아나고, 유혹은 험사리 극복됩니다.”

“두려움의 유혹은 거룩한 신뢰를 없애버린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어떤 두려움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떤 걱정이든 극복하기 위해 성모님의 칭호를 사용하십시오.”

2010년 3월 23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하루를 모두 예수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혜이신 그분께 ‘유혹이 시작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희생을 하면 할수록 사탄의 함정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 즉, 이곳에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계시된 거룩한 심방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죄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감각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압니다. 사탄은 위장의 달인이며, 흔히 선으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켜 여러분이 그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선의 본질 즉, 거룩함의 길이며 여러분이 악을 알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 무기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는 것은 천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사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혹을 피하는 길입니다.”

2010년 4월 12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영혼으로부터 현 순간을 앗아가는 가장 흔한 두 가지 큰 유혹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못함과 죄책감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은 영혼을 과거로 빠져들게 하고, 인간의 마음과 하느님의 성심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으로, 교만의 불꽃이 이 감정을 부채질합니다.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며,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둘 다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신앙의 보호자이시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저를 도우러 오소서.’ 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로 피하십시오.”

“사탄이 도망칠 것입니다.”

2010년 4월 12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유혹이란 영혼을 죄로 부르는 사탄의 초대’라는 사실을 모든 영혼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각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 사탄이 자신을 초대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이 사탄의 초대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런 유혹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탄의 초대에 넘어가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위장의 달인이며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은 ‘신앙의 보호자이시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저를 도우러 오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 안에 줄곧 머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좌절이나 신뢰 부족, 혹은 성급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을 현 순간에서 끌어내어 미래로 빠져들게 하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걱정도 추측도 하느님의 완전한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완전한 도구가 되려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현 순간 안에 머무르십시오. 현 순간에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일수록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여러분을 더 많이 쓰실 것입니다.”

2010년 5월 12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영혼이 모든 유혹에 문을 열게 되는 길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첫 자리에 두고, 하느님과 다른 모든 사람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통해서 그는 진리를 타협합니다. 이렇게 하여 선은 악이 되고 악은 선이 됩니다. 진리는 개인적 안전들에 의해 가려지고, 죄는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통해 영혼은 자기 마음과 하느님의 성심 사이에 심연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자기 사랑’을 통해 영혼은 자신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으며, 심지어는 죄를 짓지 못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혼은 모든 영혼의 원수의 수중에 떨어진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악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무지한 영혼을 무장해제 시키는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매우 위험한 유혹의 손아귀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많은 영혼이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눈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겸손의 진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기 있는 영혼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

“주님, 당신의 말씀은 빛이며 진리입니다. 당신의 안배와 자비와 사랑은 진리 안에 감싸여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늘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 숨어 있는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겸손이 진리 그 자체임을 아오니, 겸손이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 성인께서 주신 기도문

“사랑하옵 예수님,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 저를 공격해 오는지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저의 갑옷이 되어 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아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안에 머무르기 위한 화살기도

“신앙의 보호자이시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저를 도우려 오소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영) 440-327-8006 www.holylove.org

(한) 440-657-0113 www.holylovekorean.com